



삼성스토어 남원공설시장점, 시에 전기장판 기부

남원시는 지난 14일, 삼성스토어 남원 공설시장점(대표 김경찬)에서 전기장판 66개(환가액 99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10월 1일 재단장 오픈한 삼성스토어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첫 나눔 활동으로,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남원시 한파 취약계층에 온정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성·금품 기탁 희망자는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620-633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찬 대표는 전남 영광군에서 삼성전자 대리점 사업을 시작해 꾸준히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 남원 공설시장점 대표로 부임하면서 남원에서도 지역사회 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의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협, 조합장배 파크골프대회 성료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14일 남원시 그린파크골프장에서 조합장배 파크골프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조합원 간에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한 농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 행사에는 남원농협 조합원 및 가족,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남원시 파크골프 협회 회원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남자·여자부 각 1위에서 5위 우승자에게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되고 전원에게 기념품과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었다.

박기열 조합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용지면 지사협,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병삼)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용지농협 육묘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쳐,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청년회, 생활개선회, 여자의용소반대, 용지면 직원 등 6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배추 손질부터 양념 버무리기, 포장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김장 배추 절임과 재료 준비를 분담하며 정성껏 김장을 담갔다.

정성으로 담은 김치는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약 180세대에 직접 전달되었으며, 방문 과정에서 각 가정의 안부와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시간도 함께했다. 이번 나눔을 통해 겨울철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

최병삼 민간위원장은 "모두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김장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화 용지면장은 "연말이 다가오는 김장 나눔은 용지민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 행사"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금산면 지사협, 사랑 가득 김장 나눔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정영종)가 14일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 약 250여 세대와 54개 마을 경로당에 각각 김장 김치 1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한 김치는 총 1,000포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내의 다양한 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관내 거주하는 이웃을 위해 김장 김치를 손수 담아 가가호호 직접 방문에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정영종 민간위원장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을 담아 준비한 김치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정 금산면장은 "추운 계절을 앞두고 정성껏 담은 김치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에 기여’

남원시, 고향사랑기부 대상 수상... 홍보·모금 활동·기금 활용 등 전반적 영역

남원시가 지난 13일,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 대상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날 처음으로 시상된 SBS 고향사랑기부 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기부제 홍보·모금 활동, 기금 활용 등 전반적 영역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에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13개 지자체에 수여됐다.

남원시는 관(내)외의 찾아가는 방문 홍보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 온·오프라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을 통한 기부자 예우, 기부자 맞춤형 답례품 발굴 청소년 인재 양성 기금사업 추진 등의 공을 인정받아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 대상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기금사업 추진과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을 통해 대한민국에 고향사랑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소아치과 박유라 전공의, 2년 연속 학회 우수상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치과 박유라 전공의가 대한소아치과학회 2025 추계학술대회에서 "구연발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학회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병원 측은 지난 14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임상과 연구의 균형을 갖춘 전공의의 성과로 학문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박 전공의는 원광보건대학교 WM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I급 부정교합에서 Bbbcc 장치의 포괄적 두부계측학적 평가'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Bbbcc 교정장치를 적용한 환자의 치료 전후 두부규격 방사선 사진을 비교 분석해, 교정장치가 △얼굴 성장 방향 △치성 변화 △기도 공간 △혀와 설골 위치 등 전반적인 안모·기능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



토했다.

이번 연구는 Bbbcc 장치가 단순한 악궁 확장 도구를 넘어 성장기 아동의 얼굴 균형과 구강 기능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회는 발표의 임상적 기여도와 연구 완성도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라 전공의는 "Bbbcc 장치는 성장기 안모 조화, 호흡기·구강 기능까지 함께 고려하는 기능적 교정장치"라며 "상·하악의 전방 성장 유도 기도 폭 증가, 혀 위치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규명한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전북대병원 소아치과의 뛰어난 임상 능력과 연구 기반을 입증하는 성과"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군산 아가페지역아동센터 'JB희망의 공부방'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4일 군산시 삼학동에 위치한 아가페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13호' 오픈식을 열고 노후된 학습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04년 개소한 아가페지역아동센터는 주변 지역 아동 35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문화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아동복지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개소 당시 외부기관에서 기부받은 물품들을 지금까지 사용해 온 탓에 노후화된 책상과 의자, 어두운 학습 공간 등이 안전 문제와 학습 효율 저하를 우려하게 했다.

전북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겁고 낡은 목재 책상과 의자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오래된 불박이 책상도 새롭게 교체해 밝고 쾌적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했다. 아울러 학



참석했다.

전상익 부행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 기부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군산지역에 20번째 공부방을 오픈한 것에 큰 의미를 둔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남원 금동 지사협,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남원시 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인술)는 14일, 회원, 부녀회장, 통장단 및 관내 직능단체 회원 60여 명과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맛과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 봉사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품질 좋은 절임배추와 남원에서 생산한 신선한 재료로 김장김치를 담가, 관내 10개소 경로당과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12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한 어르신은 "겨울을 앞두고 김장 걱정이 컸는데 동에서 챙겨주시니 마음까지 든든하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봉태 동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한마음으로 관내 직능단체 많은 분이 함께 참여해 뜻이 깊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상하수도공기업 등 연탄 6000장 나눔 봉사

김제시(시장 정성주)수도사업소는 지난 14일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신광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수도사업소 직원을 비롯해 (주)전북엔비텍, 리뉴어스(주), 신진유지건설(주), (유)일토씨엔엠 등 상하수도 공기업 및 관련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취약계층 10가구에 연탄 6,000장을 배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번 봉사는 상하수도공기업 예산과 관리대행업체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540만원으로 추진.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뜻 깊었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시 우아1동 상가번영회, 자장면 나눔봉사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동장 송정하) 상가번영회(회장 박균성)는 지난 13일 종로반점에서 4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랑의 증식 나눔 봉사를 펼쳤다.

이날 자장면 봉사는 다가오는 추위를 따뜻하게 이겨내자는 취지로, 종로반점과 우아1동 상가번영회(회장 박균성)에서 자장면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400여 명의 어르신께 떡, 과일, 음료수 등과 함께 자장면을 제공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종로반점에 모인 우아1동 상가번영회와 새마을부녀회 회원 50여 명은 식사 준비와 배식을 맡아 어르신들이 불편한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도왔으며, 우아1동 자율방범대도 동참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장 주변 교통정리 봉사를 하는 등 우아1동 자생단체가 함께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이창립 우아1동 종로반점 대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기쁘고 맛있게 드시며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균성 우아1동 상가번영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을 선물해 주신 종로반점과 상가번영회, 부녀회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우아1동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비전대 간호학부 RISE 서비스러닝 봉사활동 펼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 간호학부는 지난 14일 전주 평화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러닝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간호학부 재학생들이 참여해 독거노인 식사지원, 낙상예방·식습관·사고예방 등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설희 학생(4년)은 "학교에서 배운 간호학적 지식을 실제 지역 주민에게 적용하며 봉사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예비 간호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심훈 간호학부 책임교수는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지역 현장에서 적용하며 봉사의 의미를 체감하는 과정이 예비 간호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기전대 산림치유과, 일본 '치유의 마을'로 졸업여행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 산림치유과 2학년 학생들이 일본 나가노현 시나노마치(Shiranomachi) 치유의 마을로 3박 4일 여정으로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산림치유 태동기에 모델이었던 시나노마치의 치유마을 성공사례를 직접 배우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형 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시나노마치는 일본 내 산림치유 개념이 처음 정립되고 제도화된 지역으로, 지역의 숲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과 지속가능한 운영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학생들은 현지의 산림치유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직접 견학하며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산림치유의 실제 적용방식과 운영 구조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탐방에 참여한 창대현 학생(산림치유과 2년)은 "책과 강의에서만 접하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제로 체험해 보니 숲이 사람에게 주는 치유의 힘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한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림치유마을이 활성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낙영 교수(산림치유과)는 "현장에 직접 가서 배우는 것은 교실에서의 배움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기자